

제24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20년 6월 8일 (월) 오전 11시

제24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제1차 정례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현주)

○의사팀장 박현주

(11시 개식)

지금부터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명원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순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되지 않았지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몹시 반갑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특별히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계시는 의료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활 정치의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열정을 다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불어 전국 최고 의회의 기치를 내걸었던 우리 의회와 함께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2 (제248회-개회식)

로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특히 오늘은 해운대구의회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의회는 올 상반기 민생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고, 오늘부터 25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 결산 및 2020년 제2회 추경안과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는 정례회를 통해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2년을 내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집행이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되었는지, 집행 과정 상황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한정된 기간 안에 여러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제공과 협조를 통하여 면밀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서정학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태풍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고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은 이미 안전 개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장한 만큼 안전 관리와 함께 방역 대책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지방의회 최초로 종이 없는 의회를 시작합니다.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날로그 의회의 체질 개선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최고 의회의 기치를 내걸었던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앞으로도 최고 의회로서 위상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생활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현주

이상으로 제248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폐식)